

1 예배의 부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지난 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2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3 대표기도 가족 중 한 명

4 성경봉독 출애굽기 15:22-16:3

5 말씀선포 설교문 참조(뒷면)

6 감사의 시간

1) 서로 감사의 제목 나누기

2) 서로에게 감사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하기

3) 하나님께 감사

서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한 문장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7 찬양 좋으신 하나님

8 주기도문 다같이

649

감사찬송

A. L. STORM 詞 · J. A. HULTMAN 曲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길가 의장미꽃 감사 장미꽃 감사



지난 주 억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해쳐 줌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 할 양식 감사



항기로운 봄철에 감사외로운 가을날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절망 중위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하늘 평안을 감사



사랑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 해
측량 못 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 해
내일 의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해

389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한없는 조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출애굽기 15:22-16:3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러 죽게 하는도다

당신은 불평주의자인가요? 감사주의자인가요? (출애굽기15:22-16:3)

헬렌켈러는 “불평주의자들은 천체의 비밀을 발견한 적도 없고, 미지의 땅을 향해 항해한 적도 없으며, 영혼을 위한 새로운 천국을 열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평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됩니다. 불평주의자 VS 감사주의자, 보통 사람들은 누구 옆에 있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고 싶어 할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 편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느 편에 서고 싶은가요?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후 감사와 찬양이 끝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15장 찬송과 감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출15:21-24절에서 순식간에,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라에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16:1-3절 이전은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물을 마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사막과 광야는 불평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과거의 애굽 생활을 회상하며 찬양과 감격에서 바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한 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처구니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 투덜거림 속에서 사는 삶,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사막과 같은 삶으로 불평과 원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2:14-15절은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없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출16: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던 이유는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고기를 먹던 때와 지금의 모습과 비교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 그는 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불평과 원망, 짜증이 생긴 것입니다. 비교하다가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알리아는 다알리아고 채송화는 채송화입니다. 키와 색깔, 향기가 다 다르고 독특하며 고유한 가치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헬, 포이에마)으로 지어졌으며 상품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자꾸 비교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출16:1-3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설레임은 없고, 앞에 있는 현실만보고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고 죽느냐? 사느냐? 의 문제로 간혀버린 사면초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를 잊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막에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현재는 목마르고 배가 고프지만 미래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습니다. 현재는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향한, 미래를 향한 설레임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막다른 사막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현실!(사업과 건강의 문제), 막다른 골목!(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가장 멋진 곳으로 인도 하는 미래에 대한 설레임이 있다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현실)에 발목 잡히지 말고, 인생의 전체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면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막혀진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설레임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설레임이 있습니다. 천국을 보는 사람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비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미래에 대한 설레임을 갖는다면, 인생을 감사로 세우는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자”는 ‘무엇을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채식 주의자, 독신주의자, 공산주의자, 완벽주의자, 불평주의자). 우리는 어떤 주의자가 되어야 하나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어도 감사 할 수 있는 **감사주의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결단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감정은 따라오지 않아도 의지를 따라 무조건 감사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감정적으로 감사할 수 없어도 이해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평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적으로 감사 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빌4:6-7과 골3:15절에서는 평강의 부르심 앞에서 감사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문제와 불평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주의자로 결단할 때 언제나 감사로 하나님의 감격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모든 가족이 감사주의자로 세워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